

반곡으로 돌아가는 이원을 보내며

퇴지 한 유

『古文眞寶』後集 卷四

送李愿歸盤谷序. 韓退之.

태항산의 남쪽에 반곡이 있다. 반곡 안은 샘이 달고 땅이 비옥하여 초목이 무성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사람은 두 산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라 “盤”이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골짜기가 그윽하게 자리잡고 산세가 험하여 은자가 거닐[盤旋] 만한 곳이므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한다. 내 친구 이원이 이곳에 산다.

이원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는 대장부라는 것을 내가 안다. 남에게 이익과 혜택을 베풀고 당대에 명성을 빛내며 조정에서 앉아 백관의 진퇴를 정하고 천자를 보좌하여 명령을 내린다. 밖에 나서는 깃발을 세우고 활과 화살을 든 병사들이 늘어서고 무부가 길을 열고 종자가 길을 채우고, 시종이 물건을 가지고 길에서 바삐 따른다. 기쁘면 상을 주고 노하면 벌을 내리며 재주있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고금을 논하고 성덕을 칭송하되 듣게 되는 말은 거슬리는 것이 없다.

太行之陽에 有盤谷한대 盤谷之間이 泉甘而土肥하고 草木叢茂하여 居民이 鮮少라. 惑이 曰: 謂其環兩山之間이니 故로 曰: 盤이요, 或이 曰: 是谷也가 宅幽而勢阻하여 隱者之所盤旋이라. 友人李愿居之라.

鮮少 거의 없음 宅幽 그윽한 곳에 자리잡다 盤旋 이리저리 거닐다

愿之言에 曰: 人之稱大丈夫者를 我知之矣로라. 利澤施于人하며 名聲昭于時하여 坐于廟朝하여 進退百官而佐天子出令하고 其在外則 樹旗旄羅弓矢하여 武夫前呵하며 從者塞塗하고 供給之人이 各執其物하여 夾道而疾馳하고 喜有賞하며 怒有刑하고 才峻滿前에 道古今而譽盛德하되 入耳而不煩이라.

前呵 귀인이 통행할 때 앞에서 소리를 내어 길을 여는 것(辟除).

塞塗 길을 가득채움 供給之人 필요한 물건을 대거나 관리하는 사람

道古今 고금을 말하다.

“초승달 눈썹에 도톰한 뺨, 맑은 목소리에 에스라인 체형, 빼어난 외모 어진 마음씨 가진, 바람에 옷자락 하늘거리고 긴 소매자락 끌며, 화장을 아름답게 한 [여자들]이 온 집에 들어서서 한가로이 살면서, 서로 충애를 시샘하고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며, 어여쁨을 다투어 사랑을 얻고자 한다.

“대장부로서 임금의 알아줌을 얻어 당세에 권력을 누리는 자가 하는 일들이 이리하다. 내가 이런 것이 싫어서 달아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천명에 속하는 것이라, 요행히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가난하게 거하고 황량한 데 처하여, 높은 데 올라 먼 곳을 바라보고 무성한 나무 사이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맑은 샘에 몸을 씻어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 산에서 캔 것은 맛보기에 아름답고, 물에서 낚은 것은 먹기에 신선하다. 일어나고 눕는 것에 정한 때가 없으니 다만 편한 대로 사는 것이다.

“앞에서 칭찬을 듣는다한들 어찌 뒤에서 헐뜯지 않은 것만 하겠으며, 그 몸에 즐거움을 누린들 어찌 마음에 근심없는 것만 하겠는가. 예절 [거마와 복식]에 얽매이지 않고, 형벌을 당할 근심도 없고, 정치의 평온함과 어지러움을 알지도 못하고, 벼슬살이에 나가고 쫓겨나는 것도 듣는 바 없다.

“대장부로서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이 이리하다. 내가 이것을 행하려 하노라.

“높은 사람의 집을 들락거리고 권세있는 데를 찾아 뛰어다니며, 발이 나아가야 할 때 주저하게 되고 입으로 말을 해야할 때도 더듬거리게

曲眉豐頰에 淸聲而便體하며 秀外而蕙中하며 飄輕裾하고 翳長袖하여 粉白黛綠者가 列屋而閑居하고 妬寵而負恃하며 爭妍而取憐이라.

飄輕裾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양

翳長袖 긴 옷소매를 끄는 모양

粉白黛綠 여인의 화장한 모습

大丈夫之遇知於天子하여 用力於當世者之爲也라. 吾가 非惡此而逃之라가 是有命焉이니 不可幸而致也니라.

用力 권력을 누리다. 惡 싫어하다. 幸 우연히 ~하다.

窮居而野處하고 升高而望遠하여 坐茂樹以終日하고 濯清泉以自潔하여 採於山美可茹요 釣於水鮮可食이라. 起居無時에 惟適之安이니 野處 ‘집’ 또는 ‘도시’에 사는 것과 대비되는 표현.

美可茹 좋아서 먹을 만하다.

與其譽於前은 孰若無毀於其後며 與其樂於身은 孰若無憂於其心오? 車服不維하고 刀鋸不加하며 理亂不知하고 黜陟不聞하도다.

與其~孰若...~이 어찌...이겠느냐?

車服 타는 수레와 입는 옷. 예절을 차리는 것을 말함.

刀鋸 칼과 톱. 형벌에 쓰이는 도구 黜陟 벼슬을 얻거나 쫓겨남

大丈夫不遇於是者之所也라. 我則行之로라.

伺候於公卿之門하여 奔走於刑勢之途하고 足將進이나 而越趨이요 口將言이나 而囁嚅이라. 處穢污에 而不羞하고 觸刑辟에 而誅戮

되어, 더러운 데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다가,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 만에 하나 운이 좋아 늙어 죽을 수 있을 것이나, 죽고 나서야 [그런 짓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하는 일이 현명한 것이겠가 어리석은 것이겠는가?”

창려 한유가 그 말을 듣고 장하게 여겨, 그와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그를 위하여 노래를 지었으니, 가로되:

반곡의 안, 그대 집
반곡의 흙, 그대 경작할 땅
반곡의 샘, 씻고 거닐 만하겠네
반곡의 험함이여, 누가 다투려 하겠는가.
그윽하고 깊어 넓은 곳, 거처할 만하고
구불구불 굽은 길, 가는 듯이 되돌아오네.
아아! 반곡의 즐거움이여, 즐겁고도 즐겁구나!
호랑이 표범 발길 멀리함이여, 교룡이 숨는도다.
귀신이 지켜줌이여,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치네.
마시고 먹음이여, 장수하고 강녕하겠네.
부족한 것 없음이여, 더 바랄 것이 무엇이라.
나, 수레에 기름치고 말먹이 먹여
그대 따라 반곡 가서 종생토록 거닐어보리.

이라. 僥倖於萬一하여 老死나 而後止者가 其於爲人에 賢不肖何如也오?

越趙 자저. 머뭇거림 囁嚅 습유. 더듬거림

昌黎韓愈가 聞其言而壯之하여 與之酒而爲之歌에 曰:

盤之中 維子之宮
盤之土 維子之稼
盤之泉 可濯可浴
盤之阻 誰爭子所
窈而深 廓其有容
繚而曲 如往而復
嗟 盤之樂兮 樂且無央
虎豹遠跡兮 蛟龍遁藏
鬼神守護兮 呵禁不祥
飲且食兮 壽而康
無不足兮 奚所望
膏吾車兮 秣吾馬
從子于盤兮 終吾生以徜徉